

사순 제 1 주일

기도서 P 247 A해

제1독서(창세 2, 7-9:3, 1-7)  
제2독서(로 마 5, 12-19)  
복 음(마 태 4, 1-11)

# 숲 정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④ 2935

□ 감 론



## 「유혹에 빠지지 말자」

박 인 호 신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악마의 간교한 꾀를 거절하시고, 분쇄하신 그 승리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에 접하게 되며, 또한 헤아릴 수도 없는 유혹 앞에 정신을 못차릴 때가 많다. 또한 유혹은 그 시기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규칙적으로 도절해 오고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 복음처럼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하셨다. 이처럼 누구나 다 당했고 당하고 있고 당할 것이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대책은 별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하느님께 귀의하면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꾀를 탈취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 16, 32)고 말한 솔로몬 자신도 유혹에 넘어가 잠신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의 노여움을 초래한 것을 보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보통 어렵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참조: 열왕상 11, 1-13)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악의 유혹이 이 세상에 충만되어 있어서 (참조: 마태 18, 7) 더 어렵다. 그래서 아등답게만 보이는 유혹에 (참조: 창세 3, 6) 기만되어 불행할 자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어디로 보낼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짐을 지워주지 않듯 하느님께서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 (코전 10, 13) 유능한 항해사는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듯이 참된 신앙인은 유혹과 시련을 이용하여 오히려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맞보기 이전에 겐세마니의 처절한 유혹을 당하지 않았는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기도으로써 무장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루가 22, 46)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주의 기도)라고. 그리하여 유혹을 이기면 우리도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중앙천주교회 보좌신부)



## 탈바꿈이 문제다

— 쥐가 된 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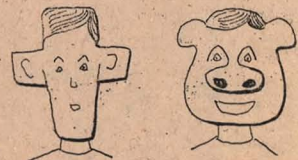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덤비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수가 많다. 그래도 그건 나는 편이다. 둘이 다 같은 고양이과니까. 문제는, 고양이는 고사하고, 쥐새끼나 여우를 그려내는 데에 있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며 혼하게 저절로 버리는 실수, 아니 고의적인 탈바꿈이 바로 문제이다. 시작은 좋았는데 그 끝이 영 영망이 되고, 끝내는 선의의 이웃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금은 사순절이다. 사순절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의 대상인가? 나의 신앙은, 혹시라도, 악세사리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닌가? 십자가는 나의 구원 이외의 아무 의미도 없는가?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웃도 더불어 사랑하는가? 이웃의 고통을 내것으로 받아드리는가? —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대답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다. 아니, 정답을 내 생활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시기여야 한다.

호랑이를 그리려던 그림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세례를 받을 때의 감명과 순수함은 어찌 되었으며, 혹시라도 천사가 악마로 둔갑해버리거나 앉았는지...?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관계없다.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몸부림이 있으면 된다. 변신된 자신을 아파하며,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과 뜨거운 몸짓이 있으면 된다.

곧 선거철이 닥친다. 아예 탈바꿈을 뒤집어 쓰고 탈출을 주는, 그에게는 이제 행세를 하고, 어제는 박씨 행세를 하다가 오늘은 또 다른 성씨가 되어 날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들을 나무라기 전에 나는 어찌지 살펴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충고도 아끼지 말자. 그리고 그런 부류들은 아예 탈을 벗겨 본 모습을 찾아 주자.

## 숲 정이 산책



소재 대재 지킨자와 안지킨자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1년도 「사순절 메시지」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절은 진리의 때입니다.

기도하고 보속하며 단식과 자기 희생을 하자는 교회의 초대 를 받는 크리스찬들은 하느님 앞에 서서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사물과는 다른 것을 차지 하라고 부름받았음을 생각하십시오. 현세적이고 물질적 인 사람은 자칭 사람의 근본되는 것을 의면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첫째가는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리스도께서 발자취를 남기신 부활을 향해 가면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가 14, 27)

사순절은 깊은 진실의 때입니다. 이 진실은 회개를 불러 일으키고 희망을 되살려 주고 만사가 제 질서를 찾게 함으로써 평화와 안식을 줍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맺고 있는 관계를 생각케 하는 때입니다. 이 생각은 형제 자매간에 응당 있어야 할 질서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서로 책임을 같이 지게 만드는 때이며, 우리의 이기심과 응졸함, 야비함과 오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비추임을 내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더 잘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 34).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루가 10, 29)

사순절은 진리의 때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시간과 가진 바를 나누게 만듭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곧 교회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며 또한 본분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생활에 옮깁니다.

성 바오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II 고린도 5, 20)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냄을 받은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신뢰에 관대하게 보답합니다.

참으로 사순절은 진리의 때입니다. 솔직하고 성실하며 소박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소외당한 사람들, 노인들 속에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품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 □ 들을 귀

### 우주의 질서

어릴적 생각이 난다. 무더운 여름 밤이면 마당 구석에 모기불을 피워 놓고 명석에 둘러앉아 얘기들을 한다. 그럴 때 나는 어른들 틈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곤 하였다. 하늘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별들은 나름대로의 개성을 자랑하면서 반짝이였다. 가끔 선을 그으며 달아나는 별뚝별도 보였다. 하늘은 마냥 신비롭기만 하였다.

하늘이 얼마나 먼지 생각해 본다. 빛은 1초에 30만km를 달린다. 빛은 1초에 지구를 일곱바퀴 반을 도는 셈이다. 1광년은 빛이 1년을 쉬지 않고 가는 거리다. 그러니까 1광년은 30만km×60초×60분×24시간×365일=9조4천600억km이다.

광속(빛의 속도)으로 달린다면 지구에서 달까지는 1.3초 걸리고 해까지는 8분 걸린다. 그런데 북극성까지는 1,100광년이 걸리고, 은하수까지는 18,400광년이 걸린다. 그리고 성운까지는 14,000,000만 광년이나 걸린다.

아인슈타인은 <지구가 한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자연 법칙을 발견하였다.

한없이 팽창하는 우주, 그 안의 모든 존재들이 자기 고유의 질서를 갖고 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하며, 24시간 걸린다.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하며, 365일 걸린다. 자연의 질서가 오묘하기만 하다. 국어사전을 보면 자연이란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라 적혀있다. 과연 대자연의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지구가 과연 저절로 도는가? 아니면 누가 돌렸을까? 돌중 하나겠지만 과연 어느쪽일까? 생각해 본다. <金鍾吉 神父>

## 사순절 헌금에 최대의 성의를!

부족한 사제 양성, 성소 후원을 위해서 사순절 성금운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저금통의 동전 한낱이 신학생의 쌀이 되고 책이 됩니다. 교우들의 뜨거운 정성을 빕니다.

—교구 사제 양성 후원회—

사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교구와 본당에서 호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진리를 여러분 몸으로 실천하라는 호소입니다. 그 진리의 증거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호소입니다.

눈을 뜨고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이해하고 동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벌여 도와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곤궁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나눔에 관대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약속하면서 사도적 축복을 보냅니다.

재의 수요일에  
요한 바오로 2세

표 구 일 철  
 서 화 매 매

**윤 표 구 사**

전주시 중앙동 1가 48  
(다가동 파출소 앞)  
윤 병 훈(아오스팀)  
전화 ② 6 4 4 5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신속 배달  
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③ 5 6 6 9 번  
주 최남수(아폴로니오)  
(가톨릭 센터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신장 개입 안내

금·은·보석·시계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영(대치여관 입구)  
전화 ⑥4989(사구팔구) ⑥4988

## 「사제생활 쇄신을 위한 집중 세미나 (Aggiornamento)를 앞두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제로써 수행해야 할 임무는 더욱 허다하게 복잡해지고, 각종 난 문제가 산적(山積)해 있다. 더구나 혼란의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여러가지 일에 자신을 분산시킬 위험이 많다. 그 임무상 많은 의무에 묶여 쫓기고 있는 사제는 어떻게 하면 외적 행동의 요청과 내적생활 사이에 통일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제생활의 통일은 직무상의 모든 활동을 단지 표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나 또는 신심의 실천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사제직무교령, 14) 더 깊은 교회 정신과 사제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향한 쇄신을 필요로 하며, 사제로써의 직무상 외적 활동과 신심적인 깊은 영적생활의 조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런 시대적 요청과 교회의 요구에 의하여 사제들이 과거의 흐트러진 생각을 다시 가다듬고 정리하며 영성을 깊이 하기 위하여 가끔 피정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 근번 본 교구에서는 사제들이 공의회 정신에 비추어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특별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서울 상지회관에서 교구의 전 사제들이 함께 모여 사제생활 쇄신 집중 세미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내외(필리핀, 동남아시아 사목연수원)에서 초대되는 강사진의 강의와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이며, 사목활동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검토 및 방향을 제시하고 사제생활의 쇄신과 영성, 사제단의 일치를 위한 이번 사제 교육을 위해 이미 사목국에서는 작년부터 자료 수집과 그 준비 작업에 임해 왔다.

사제 생활의 쇄신과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가 훌륭한 계획하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자.

### 사제 세미나 안내(준비)

1. 기 간 : 1981. 4. 27(월) 오후 2시부터 5. 16(토) 오후 2시까지
2. 장 소 : 서울 상지 회관
3. 대 상 : 교구내 전 사제(은퇴신부 자유)
4. 참고사항 : ① 세미나 기간동안 각 본당에 3주간 미사가 없게 됩니다.  
 ② 세미나 기간 2주일은 평신도에 의한 「말씀의 전례」로 대신합니다. (자료는 주보를 통해 제공할 것입니다)  
 ③ 말씀의 전례를 위한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교구에서 4월 8일과 21일에 실시할 것입니다.  
 ④ 기타 사항은 매주 주보를 통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 교리교사 연수회를 마치고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2차에 걸쳐 동계 교리교사연수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연수회를 위해서 도와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전동, 노송, 서학, 복자, 팔마성당 사도회 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참 가 실 적

- 참가 본당 : 29개본당 (38개본당 중)
- 불참 본당 : 고창, 수류, 장계, 장수, 진안, 한들, 순창, 용안, 화산)
- 교구내 교리교사 수 : 210명 (9개본당 제외)
- 참가한 교리교사 수 : 163명 (참가율 77.6%)
- 제일 많이 참석한 본당 : 장인동 13명 참가 (교구 지도신부·김병환)

### 「토 용 탕」

보신 보양 고단위 영양식품  
 각종 난치병에 효과가 좋음  
 군산 토용센터(한일은행 뒤)  
 전화 ① 1636  
 전주 전동 대건다방  
 전화 ② 9740  
 유 석 중(스테파노)

### 신비의 토롱 진액 회소식

대학 교수진에 의하여 개발한 토롱  
 진액과 초밀란(버어몬트)  
 가격 : 토용탕 4,000  
 초밀란 4,000  
 전주 토 롱 썬 타  
 구 성모병원 3층 322호실  
 전화 ② 2301 오 예 환(바오로)

## 요십이 (396) 김병오

우리학급반장을 어떻게 선출할까요?

우리반 학생들이 직접 선거합니다

반장선거인후보자가 임후보하여 연설했다면

우리들은 반장선거인단을 선거하고 그선거인단이 반장을 선출하도록...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주세요

###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머도(역배)·이 마리아

## 동양 매듭

- ◆ 실내 장식용 벽걸이
- ◆ 훈수용 노리개 종류

### 환 <개인지도>영

전북은행 본점 후문 앞

7광구 다방 입구

### 미라 고전 매듭실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레지오 마리에 간부 세미나(각 분당 Pr. 간부 1명씩)  
1차 : 9~10일(전주·군산·이리 지역), 2차 : 11~12일(3시의 전지역), 신설Pr.간부 연수 : 27~28일
2. 신용조합 임직원 연수...3월 13~14일, 오후 2시, 센타
3. J.O.C 세미나...3월 10일 오전 10시, 센타
4. 푸르실로...여성 11차(3월 16~19일), 남성 16차(3월 23~26일)
5. 쌀 생산비 조사원 교육...3월 14일<토> 11~17시, 센타
6. 제22대 지구 중·고등학생 정기총회...3월 8일 오후 5시 중앙성당에서, 참가비 : 700원  
※ 각 분당 회장단은 꼭 참석 바랍니다

####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환  
보좌 신부 유박근  
보좌 신부 김희경  
사도 회장 김인병

1. 사도회 월례회 : 12일 오후 7시, 사제관 교문, 회장, 감사, 구역장, 반장, 신집단체장 꼭 참석하세요
  2. 푸리아 월례회 : 8일<일> 오후 2시 강당
  3. 사순절 : 사순절동안 신자는 배부된 기도, 가정성화 선영의 안식,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기도 매일 미사 참례합니다
  4. 사순절 교육
    - ① 79·80년도 영세자 10~12일 오후 7시 30분
    - ② 분당 각 신집단체 및 성인 17~19일 오후 7시 30분
    - ③ 학생(중·고·대학생) 24~26일 오후 7시 30분
  5. 연도대회 : 3월 22일 각 신집단체별 오후 성교예규회 이 바오로성원에 와 있습니다
  6. 봄 판공 : 3월 31일부터 4월 4일중 예정
  7. 가정방문 : 10일부터 서노1~2, 태평 1~2, 17일부터 고사동·경원동·기타
- 지난주 봉헌금 : 387,020원

5. 청년교리(남·여) : 매주일 저녁미사 후(보좌신부님)
  6.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조성호·박홍기)
  7. 푸르실리스타 모임 : 3월 9일<월> 저녁 7시 30분
  8. 가정방문 : 9일-다가동4가 1·2·3반, 10일-다가동3가 1가·2가, 11일-중앙동, 12일-고사동, 16일-완산동, 17일-화산동, 18일-태평1·2·3반, 19일-태평4·5·6·7반, 23일-진북1·2반, 24일-진북3·4반, 25일-기타
- 지난주 봉헌금 : 314,275원

####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가정방문 : 10일(태성리), 11일(석구리), 12일~13일(13반)
  2. 성심부녀회 : 10일 오후 2시
  3. 반장 월례회 : 공식미사 후
  4. 할머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6. 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7.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 김나섭 ② 이정빈  
신자들의 기도-박형석
- 지난주 봉헌금 : 163,405원 교무금 : 108,900원

####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나준  
보좌 신부 박중준  
사도 회장 박중준

1. 제15차 성령세미나 개최 : 16일~21일까지
  2. 유아 영세식 : 14일<토> 오후 2시, 성 본명을 미리 정하시고 부모모임을 꼭 모시고 나오세요
  3. 베소라 성서강의 : 매주<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4.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 매주<월> 오후 2시부터
  5. 지난주의 예비자 불현 : 5명, 예비자를 아직 불현하지 못한 분들은 속히 실천할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8.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루카복음 전체
  9. 외부감사 초빙 : 오늘 공식미사에 김진영 목사님께서 설교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58,230원

#### (술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공식미사 후 가정방문 : 금암동·태평동·진북1동
  2. 오늘 평신도 강론 : 박태근 선생
  3. 성모회 월례회 : 3월 15일 공식미사 후
  4. 중·고등학생들은 토요일 7시 학생미사에 나오세요
  5. 술정이 유치원 개원식 : 3월 10일
  6. 레지오 간부 세미나 : 1차-9일, 2차-11일  
신용조합 임직원 연수회-3월 13~14일
  7. 다음주 전례담당 : 해설-이철수, 독서-① 박대규 ② 이홍재, 기도-박해근
  8. 신축기금 내주신 분 : 금암동 조순봉(1만원)
- 지난주 봉헌금 : 307,490원

####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발족 : 트락회 회장-최경희, 부회장-김연심, 서기-최광림
  2. 3월중 공소 판공일  
전당리-10~11일, 미산리-11~12일
  3. 3월중 밤미사 : 13·16·17·18·19·20일 오후 7시 30분 많은 반원을 참석 바랍니다
  4. 주일학교 교리 : 주일 오후 2시, 미사 3시
  5. 차주전례 : 해설-이철중, 독서-① 전준근 ② 소병을, 기도-김은석
  6.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11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 405,380원

####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 : 공식미사 후
  2. 성화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장우회 : 저녁미사 후
  4. 가정방문(10일~13일) : 동교동·서교동
  5. 주일 미사안내 : 오전 6시, 9시, 10시, 저녁 7시
  6. 치명자산 미사 : 3월 4일~4월 11일까지(오전 6시)
  7. 금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준열, 독서-① 박종구 ② 최병래  
공식미사 : 해설-서경옥, 독서-① 이영태 ② 고수창  
저녁미사 : 해설-전영수, 독서-① 김동수 ② 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449,410원

####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첫 영성체 교리 : 3월 9일~4월 11일 매일 오후 5시
2. 축! 분당신부 영명축일 : 3월 19일 나누어 드린(영적 물체에물) 봉투 15일까지 내주세요
3.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4. 예비자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히메레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김신부님 지도

####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1시 30분
  2. 유치원 수녀님이 오셨습니다.  
조에메미아 수녀님을 환영합니다
  3. 파티마 성모회 : 발족된 간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김글라라, 부회장-전필롬바·송유리안나, 총무-김살파, 성미회제-유소피아, 회계-송베르니카
  4. 애령회도 새로발족했습니다 (임원명단 다음주 발표)
- 지난주 봉헌금 : 122,305원 어린이헌금 : 2,070원  
교무금 : 166,000원